

지역 소식통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정읍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부문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었으며,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전북도가 주관한 같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복지 전달체계 개편 분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안정적 추진과 조기 확산에 목적이 있기도 하다.

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23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전면시행 했다. 관련해 맞춤형복지 전달망을 설치하고 전달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했으며, 이동권 확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를 위해 23개 읍면동에 전기자전거를 보급했다.

또한 1인 가구 고위험군 전수조사를 통해 총1만6011가구 중 관리 대상 366가구를 발굴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돌봄 등 안부점검 등)와 함께 생계비 3600만 원을 지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중앙도서관, 현판 제작 공개식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창의적인 인문·관광도시 정읍을 알리는 현판 제작·설치와 관련 14일 공개식을 가졌다.

관련해 중앙도서관은 "인문도시로서의 정읍과 정읍을 대표하는 문학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현판을 제작, 시립도서관 3개소(중앙도서관, 신태인도서관, 기적의도서관)와 25개(출장소 포함)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개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장성열 정읍교육장을 비롯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장성열 정읍교육장이 정읍시와 삼촌곡, 동학농민혁명 민요(새아내아 피랑새아)를 낭독했다.

현판의 디자인은 정읍 대표문학인 '정읍사'와 '삼촌곡', '동학농민혁명 민요'의 원문과 주요 상징물을 우리의 전통 오방색을 바탕으로, 뿌리 깊은 인문도시 정읍을 표현했다.

홍보 현판은 4개의 패넬로 구성돼 있다. '한국 최고의 인문 도시 정읍'을 콘셉트(concept)로, 구절초와 백제시대 유일 현전 가요인 '정읍사'의 원문과 정읍시 공인 망부상, 우리나라 가사 문학의 효시인 '삼촌곡' 원문과 칠보원천마을 정국인 동상, 동학농민혁명 관련 구비문학의 중요 유산인 '동학농민혁명 민요'와 사발통문,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등을 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 대한민국 성공대상 군정정책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박우정 고창군수가 '한국인의 분향,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에 기여한 공로로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공대상' 시상식에서 '군정정책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대한민국 성공대상'은 (사)국민성공시대(대표 장원석)가 주관해 국정과 차지단체 등 분야별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둔 인물을 발굴해 그 경험과 노하우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분야별 인물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민선 6기 들어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맞춤형 복지

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환경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올해 도내 처음으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직질공원으로 인증받기도 했으며 생태관광 활성화 등 주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곡랏사르습지 예코촌 조성사

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천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정의 가장 최우선은 고창군민의 행복이며 모든 군민이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세심하고 폭넓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고창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생태 환경을 미래 고창군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촌지역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결의안 채택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원 발의

고창군의회는 14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농촌지역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안부 조정안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의원 정수는 34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고창과 부안군 도의원은 각 1명씩 줄어 들고 전주시가 2명이 늘어나는 내용으로, 고창군의회는 행안부가 제시한 안의 광역의원 정수는 1안은 4명, 2안은 17명 증가하나,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광역의원 숫자를 최대 22명에서 최소 10명 감축시키는 안으로,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전북지역 의원정수를 줄이는 조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인구수 편차인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창군의회는 최근 지방분권 개편과



고창군의회는 14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농촌지역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개편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광역의원정수 문제를 정부안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자치는 더욱 축소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농촌지역 정수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과 지역별 특성과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조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길 강력히 촉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곳곳 이웃돕기 성금 마련 '일일찻집' 운영

정읍 곳곳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일찻집'이 운영되고 있다. 연지동통장협의회는 지난 14일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운영했다. 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찻집에는 지역주민과 기관, 단체 회원들의 따뜻한

발달이 이어졌다. 이날 수익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북면 이장협의회(회장 강만수)와 새마을부녀회(회장 고경주)는 지난 13일 전라북도 공동모금회와 북면

사무소의 후원으로 '희망 2018 이웃돕기 사랑의 일일찻집'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기관단체장과 주민 300여명이 찾아 따뜻한 손길을 보냈다. 수익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북면 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여 질 예정이다. 같은 날 신태인읍도 '2018 희망나눔 이웃돕기 일일찻집'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계화 희망둥이' 출산 축하

부안군 계화면, 선물 전달·축하 시간 가져

부안군 계화면은 14일 '계화 희망둥이' 출생자 가족을 초청해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계화면 출생자 가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청취하고 공감했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안을 위해 건의하고 싶은 정책이나 지원책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날 계화면 사회단체협의회에서는 '계화 희망둥이'가 되라는 의미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생자 가족 최모씨는 "마을에 오렌지에 아이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어른들이 좋아하고 아이가 마을의 활력소가 됐다"며 아이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나타냈다. 이평중 계화면장은 "저 출산과 인구절벽 시대에 이렇게 소중한 아기를 출생한 것은 크게 축하하고 환영할 일이다"며 "짧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결과 발표

고창군의 고유 특성(역사·전통·문화·예술·특산물 등)을 교감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는 관광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개최한 '제1회 고창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14일 군에 따르면 고창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고인돌 캐릭터 모로모로를 이용한 생활용품세트(티스푼, 귀이개, 열쇠, 핸드폰고리)를 출품한 이재호(대전광역시)씨가 대상을 받았다.



아울러 금상으로는 이현곤(고창읍)씨의 보릿대를 손질하여 상자함에 정착하여 만든 보석함, 은상으로는 김민(서울시)씨의 고창의 이야기가 담긴 소품 세트(컬러링 달력·엽서, 보틀), 유정선·배수연(고창읍)씨의 북분자 열매 모양의 뚜껑을 가진 북분자 손잡이 합이 선정되는 등 총 12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이번 '제1회 고창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1차(9.4.~9.15.)과 2차

(11.6.~11.17.)에 걸쳐 모집 공고하여 19명이 총 26점의 작품을 접수했다. 제출된 작품은 지난 6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디자인 분야 교수 3명과 공무원 2명이 심사를 했으며 심사 방법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공모요강에 부합되는 작품 12점을 선정하였고 평가기준은 상품성 45점, 디자인 35점, 품질수준 20점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찻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2ea/12%, 북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694-8980
www.gangsanwine.com